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톈진외국어대학교	기숙사비	7200위안 /한 학기
파견지역	톈진	기숙사비 납부방법	분할납부( 3회 )
파견기간	2016.02.28~2016.06.29	기타비용	생활비 90만원

## ■ 파견자 정보

성 명		학 과	
성 별		학 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6. 07. 07.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톈진외대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중국인들과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들읍니다. 대체적으로 교육과정이 잘 짜져있으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약 10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반을 배정받습니다. 배정방법은 학기 첫날 간단한 레벨테스트(시험, 구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 배정 시험을 통해 반을 정하고 본인의 실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자유롭게 반을 옮길 수 있습니다. 혹시 배정 받은 반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일주일간은 다른 반 수업의 난이도는 어떠한지 청강해보며 반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회화 독해 듣기 읽기 쓰기 등이 있습니다. 학급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에 알맞은 반에서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모든 반마다 ppt발표 과제가 있어서 처음으로 중국어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학우들과 교류하고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면 수업은 8시에 시작됩니다. 약 1시간 40분동안 수업이 이루어지고 20분의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하루에 약 4시간 반 정도 수업을 들으며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독해가 주를 이룹니다. 독해 수업에 작문도 함께 이루어지며 중간과제로 중국어 발표, 간단한 연극 등을 하였습니다. 시험은 배운 내용에 비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배운 내용을 제 때 복습을 한다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Tip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반 배정 시 자신의 레벨보다 1단계 높은 반으로 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책도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쉬워졌고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수업시간의 공부뿐만 아니라 스스로 HSK를 준비하고 단어 등을 외우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업 내용은 비교적 양이 적으므로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미리 책, 단어장 등을 구비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은 출석, 중간기말, 과제점수로 합산해서 나오며 수업들은 나중에 HSK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반에서는 한국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기에 다른 나라 학생들과 친해 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톈진외국어대학교는 톈진 근교의 대학교들 중에 가장 공항과 가까이 인접해 있으며 버스(619번, 632번)를 타고 나가면 빈장따오에 음식이나 쇼핑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가까이에 있어서 위치상 좋은 곳에 있습니다. 학교 후문 바로 앞에는 쉐트 리마트라는 큰 마트가 있으며 걸어서 5분 거리에는 TESCO마트가 위치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용이하며, TESCO 앞에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씨티은행이 자리하고 있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도 많고 5분 거리에 전철 小白路역을 이용해 톈진 어디든 이동하기 간편하며 걸어서 10-15분 거리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민위엔 광장이 있어 편리합니다. 톈진관광명소는 톈진외국어대학에서 버스로 가는 것이 거의 있기 때문에 위치가 정말 좋은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톈진의 기후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공기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며 비가 그치더라도 다시 오는 경우도 있어 내일 날씨를 미리 미리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한국과 비슷하며 톈진은 봄이 더 짧았던 것 같습니다. 여름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덥고 햇살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피고 다녀야 그들이 생겨 시원합니다.

학교 주변에 버스, 지하철이 다니고 요금은 2원~3원(약 500원)으로 저렴합니다.

학교 내의 식당이 있으며 음식의 맛과 종류가 다양하고 기호에 맞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한화로 약 2000원~3000원선이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또한 다양한 중국음식점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병원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비교적 작은 질병(감기, 상처)등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톈진의 교통은 중국의 어떤 곳에 가더라도 같겠지만 한국의 교통과 사뭇 다릅니다. 횡단보도의 신호와는 상관없이 우회전이나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와 같은 신호에 차가 움직입니다. 항상 신호를 주시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정보

비 용	1800위안/30일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2인 1실 30일 기준 1800위안. 1인실을 사용할 경우 30일 기준 3000 위안이다. 호텔 기숙사라서 딱히 다른 규정 사항은 없다. 텐진외국어대학교 기숙사는 호텔로 운영되고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학교 측이 아닌 1층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주요사항	기숙사에는 가장 큰 방부터 가장 작은 방까지 4개의 종류가 있는데, 가격이 모두 같으며 먼저 도착하는 학생에게 원하는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고지한 출국 날짜 중 가장 빠른 날 기숙사에 체크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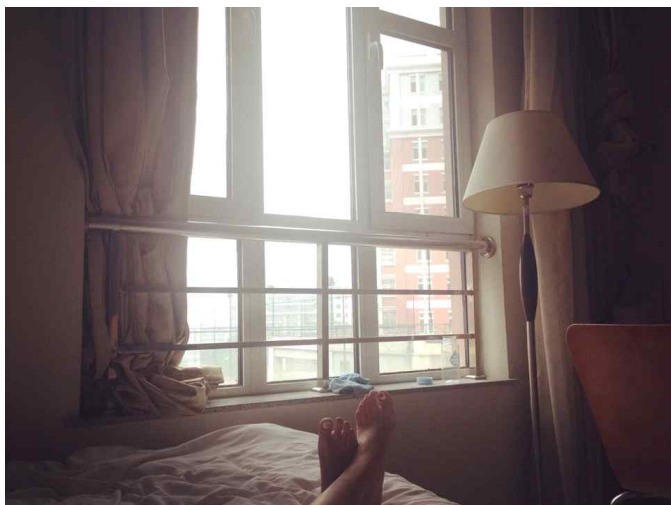


기숙사는 2인 1실 기준이라서 책상 2, 침대 2, 옷장 1개 (2인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tv도 달려 있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각 나라별 몇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KBS1, 2를 시청할 수 있기에 보고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식 기숙사라서 전기 및 수도세는 30일 1800위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방 한 켠에는 큰 창이 위치해있습니다.

처음 2월 중국에 도착 했을 때는 겨울이라 창가가 많이 춥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창이 커서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밝은 햇빛을 마음껏 쬌 수 있었고, 매일 밤마다 우다다오 의 끝내주는 야경을 보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장점!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이곳은 강의동 1층 로비 사진입니다.  
강의동은 1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과생과  
어학연수생은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들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층과 7층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문으로 입장하면 바로 강의동이어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의 청결도, 시설 완비 등은

수업을 진행하기에 지장이 없습니다.



• 공용세탁실 ( 공동 )입니다.  
세탁기가 각 층에 3개씩 구비되어 있으며 10회에  
40RMB씩 내고 사용해야하고 프론트에서 카드  
충전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옷의 분실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보아 세탁실에 건조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톈진외국어 대학교 외관입니다.  
학교 자체는 아름답지만 너무 예쁘고  
학교 자체가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야경이 예쁘다는 점과, 주말에는  
여행객들이 꽤 많습니다.

## 교환학생 파견 후기

학교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다른 중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말에도 수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강 첫 주 반 배치고사를 보고 선생님과 상담 후 반이 결정되는데 그 후 일주일간은 자유롭게 반을 왔다 갔다 하며, 반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이 결정되고 나면 본격적인 출석부와 함께 수업을 들게 되는데 수준별 수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 수는 각 반마다 다릅니다. 수업은 대부분 오전 수업으로 진행되고 일주일에 두 세 차례 오후수업을 가지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이며, 오후 수업은 그 이후에 진행됩니다. 유학생의 중국어 수업은 모두 후문 앞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주로 8~10층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7층에는 매점과 카페가 형성되어 있어 중간 중간 쉬는 시간에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는 음식 및 음료를 팔고 있고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잘만 활용하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기회도 많습니다. 수업 외에 텐진외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파티가 견학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내고 참여해야 하는 활동도 있고 무료로 이루어지는 활동도 있는데 이왕이면 모두 참여해서 외국인 친구들과 잦은 교류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참여를 하게 되면 많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텐진외대는 호텔식 기숙사와 선택폭이 넓은 반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에 중국인친구들과 교류시간을 가질 수 있고 중국인친구들을 사귀고 같이 밥을 먹고 공부하면서 중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과 친해지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도 알게 되고 세상 보는 눈도 넓어졌습니다.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한국학생이랑 살지 아니면 외국인 학생이랑 쓸지 결정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모두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저의 경험상으로는 외국인 학생과 쓰게 되면 일정 부분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언어를 중국어로 대화함으로써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과 쓰게 되면 문화적으로는 불편함이 없지만 중국어보다는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더 많이 쓰고 싶다면 외국인과 생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기숙사 1층 로비에는 카페가 있는데 그 곳에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수도도 떨고 중국어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통해 느낀 건 외국인, 중국인 상관할 것 없이 중국어가 늘고 싶다면 그들과 많이 만나고 서로 소통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한인유학생회에 가입해 우선 한국인, 일본인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과 친목을 쌓은 뒤,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보다는 그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 중국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을 많이 안하기보다는 잘못하는 중국어라도 계속 말해보는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을 하면서 여행을 다녀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사소한 것이라도 다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겪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은 크고 작은 재미난 에피소드가 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헤쳐 나가기 위해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니 중국어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진짜 공부”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중국은 저에게 생각보다 매력적이고 특히 텐진은 한번 더 살아보고 싶은 도시라고 느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실 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파견기간동안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